

# '치안 올레길' 운영 두달 광주 강력범 확 줄었네

### 절도 27%·강도 33% 급감

#광산구 하남주공아파트에 사는 최도화(여·55)씨는 아파트 입구에 나가면 기분이 좋다. 그는 "아파트 주변에서 절도나 싸움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해 이사할 생각만 했는데 범죄가 등장한 뒤 주변이 한결 깨끗하고 밝아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서구 농성동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59)씨는 최근 순찰차가 자주 보이고 순찰을 도는 경찰관도 부쩍 늘어나면서 언제 무슨 사건이 생길지 모르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다. 그는 "요즘 경찰이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도입한 '치안 올레길'이 범죄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 올레길'은 각 지구에 별로 도보 1시간 거리(3km 이내)의 2~3개 코스를 선정해 주민과 경찰, 치안협력단체 관계자가 함께 걸으며 범죄 수법, 유형별 범죄 분석과 예방요령 등의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나 건의사항을

치안시책에 반영하는 제도.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치안 올레길을 운영한 결과 올레길 주변 범죄발생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도 27.6%(775건→561건), 강도 33.3%(3건→2건), 성범죄 17.6%(17건→14건)로 각각 감소했다.

경찰은 올레길 주변 도로 86개소를 특별 순찰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취약시간대 도보 및 차량 순찰, 주민과 걷기 체험을 통한 방법의식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래 출신 의경 7명으로 구성된 치안 올레길 변화봉사단이 지역 내 방치된 담장에 벽화를 그린 것도 크게 일조했다.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밝게 개선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올레길 코스에 분부터 겨울까지 계절·테마별로 벽화를 그리고 있다. 현재 광산구에 4곳을 비롯해 북구 2곳, 서구 4곳, 동구 2곳에 벽화 그리기가 완성됐거나 진행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나의 영어실력은?

12일 오전 광주일보와 한국토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광주 봉선중 고사장에서 실시된 '제2회 호남초중등 영어학력평가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이날 영어학력평가는 5000여명이 응시한 가운데 광주·전남북 30개 학교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학생 1인 교육비 전국 최고

### 초·중·고생 각각 927만원·936만원·1201만원

### 광주지역 초등생 589만원 ... 전국 평균 밑돌아

전남지역 초·중·고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종합적인 재정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1인당 교육비(방과후 학교 등 수익자부담 포함)는 초·중·고 모두 전남(927만원·936만원·1201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532만원·696만원)가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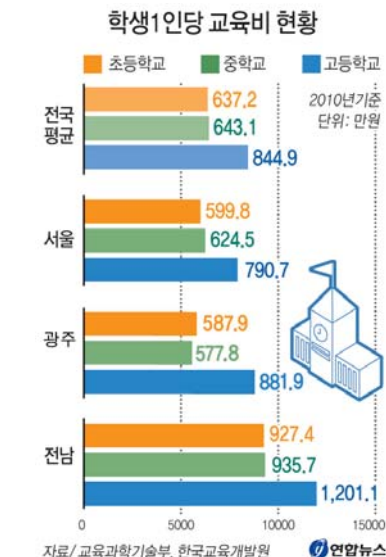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기본은 영비 등이 반별 학생수가 아닌 일일 학생수 기준으로 책정되는 데 비해 전남은 학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와

소수 학급이 타 시도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에는 6학년 이하 소규모 학교가 무려 339개교(초 163개·중 141개·고 3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주 초·중·고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589만원으로 전국 평균(637만원)에 못미쳤으며, 중학교도 577만원으로 역시 전국평균(643만원)을 밑돌았다. 고등학교는 881만원으로 전국평균(845만원)을 웃돌았다.

1만1000여개 공·사립학교 재정분석 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04명(초 18.32·중 17.5·고 14.85)으로 경기(20.77명)가 최다, 강원(15.12



명)이 최소였다. 교원 1인당 인건비(5723만원)는 2009년보다 151만원 늘었다. 학교 인건비 중 학교회계직 인건비가 10.38%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5분 / 해질 17시 28분 / 달뜨기 20시 03분 / 달지기 09시 54분

**맑은 가을 하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맑겠다.

광주	맑음	6/15°C
목포	구름조금	7/14°C
여수	맑음	9/16°C
나주	맑음	5/16°C
완도	맑음	8/15°C
구례	맑음	4/16°C
강진	맑음	7/15°C
영암	맑음	5/15°C
장흥	맑음	5/15°C
순천	맑음	8/17°C
영광	맑음	4/14°C
진도	구름조금	6/15°C
전주	맑음	4/14°C
군산	맑음	5/13°C
남원	맑음	1/13°C
홍산도	구름조금	11/12°C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바다	종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	낮음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	주의	-

◇주간날씨: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오늘부터 쌀쌀...따뜻하게 입으세요

14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14일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4~17도 분포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쪽에서 서서히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는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한차례

비가 내린 뒤 낮 최고기온이 12~14도까지 떨어지는 등 평년(최저기온 -2~8도, 최고기온 11~16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강수량은 평년(강수량 1~2mm)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영구 퇴출

### 교통사고 입·통원 기준 마련

앞으로 보험사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영원히 퇴출된다. '나이롱 환자'처럼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큰 교통사고 경상(가벼운 부상)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거의 확정됐다.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신분증 제재

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 업계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다.

총리실 TF가 추진하는 가벼운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은 최근 운영보고와 공청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내년 고교·공립유치원

### 입학금·수업료 동결

####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13일 2012학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복지 사업과 교

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물가안정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업료·입학금의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째다.

공·사립고교 수업료는 분기에 급지별로 최저 15만9000원~최고 28만8000원(일반계), 10만8600원~15만6900원(전문계), 공립유치원은 3만3600원~6만8400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교권침해 급증...올들어 27건

올해 광주지역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언어맞거나 폭언을 듣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광주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들에 의한 교사 피해 사례는 2009년 16건, 지난해 19

건에 이어 올해는 10월말 현재 27건에 달했다. 주요 사례는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등이다.

최근에는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머리카락을 잡거나, 초등생이 신발 주머니로 여교사 얼굴을 때린 일도 발생한 등 극단적인 행동도 적

지 않다.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연 뒤 교육청 보고 건수만 집계한 것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한 사건까지 합하면 피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학생 가운데 11명은 출석정지를 받았으며, 11명은 대안학교 프로그램 참여, 3명은 전학, 1명은 퇴학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이태리소파 식탁/좌탁 30%

### 11월 신상품 포함 2011 최대특별가 판매 (12월18일까지)



**골드소파** 모방되지 않은 오리지널 20kg골드소파



**기능소파** 이태리가죽과 독일기능의 최고급소파



**앤틱식탁** 보조판 연결로 10인용으로 간단사용



**골드식탁** 국내최저가판매, 밀라노 디자인 특허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  
동구 경동 58-15 경동로터리 홍스페이스가구빌딩

홍은 수입원/직수입→도매가 판매(전남에 한함)  
서랍안이나 가죽이 역한 냄새가 나면 독성있는 중국산입니다.  
전국 고급가구의 90% 이상은 중국산입니다.(수입신고서 확인)  
이태리가구 전문 빌딩 400평 매장

# 친환경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후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할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량 4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월)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월)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월)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월)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월)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월)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월)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정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